

#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b>아름다운재단</b>	<a href="http://www.beautifulfund.org">www.beautifulfund.org</a>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b>알싸한홍어</b>	<a href="http://alssahan.co.kr">alssahan.co.kr</a>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b>정성농장홍삼</b>	<a href="http://jeongseongfarm.com">jeongseongfarm.com</a>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b>비타샵</b>	<a href="http://vitashop.co.kr">vitashop.co.kr</a>
예쁜 구멍이 쫌!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b>미궁장사랑</b>	<a href="http://jangsarang.com">jangsarang.com</a>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b>수아비스화장품</b>	<a href="http://www.suavisslab.com">www.suavisslab.com</a>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b>풍무양고기</b>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b>매트리스업</b>	<a href="http://www.mattressm.com">www.mattressm.com</a>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b>네펜알</b>	<a href="http://nepr.co.kr">nepr.co.kr</a>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a href="https://facebook.com/tartfarm13">facebook.com/tartfarm13</a>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b>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b>이담채김치</b>	<a href="http://edamche.com">edamche.com</a>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b>메이드바이어스</b>	<a href="http://madebyus.co.kr">madebyus.co.kr</a>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b>전창걸의새싹땅콩차</b>	<a href="http://전창걸.com">전창걸.com</a>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b>좋은사람과플라워</b>	<a href="http://flowergood.co.kr">flowergood.co.kr</a>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b>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b>	<a href="http://cafe.daum.net/7000kim">cafe.daum.net/7000kim</a>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a href="http://wowabalone.modoo.at">wowabalone.modoo.at</a>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촛불이 검찰을 움직였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최순실 안중범 정호성 등을 수사한 검찰이 박근혜를 피의자, 아니 주범으로 낙인찍었습니다. 박근혜의 변호인은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더니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이 끝내 열 받았습다. 그러더니 SBS 기자에게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했어요. 증거로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박근혜가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한 게 있다, 이걸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핫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박근혜가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 이른바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고요.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아무리 상대가 박근혜라도 상당히 치졸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대면조사에 응한다면 촛불이 핫볼이 될 만한 사안을 물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편, 권력의 개였다가 갑자기 정의의 사도로 급변하는 검찰을 대하는 심정, 참으로 복잡합니다. 대대로 그랬듯 검찰이 곧 낱 권력과 순장될 수 없다는 몸부림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박근혜가 죽은 권력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고 반응하는 집단입니다. 죽은 권력이라고 판단되면 사정없이 물어뜯지요.

미흡하고 진정성도 없어 보이지만 이 검찰을 추동했던 것은 역시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촛불이 있었기에 검찰이 이런 반전을 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뜻한 복장으로 중무장해 돌아오는 주말 광화문에 또 집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 눈앞에 와 있습니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23일(수) 1부 | 취 "최순실에 속아", 최 "자가 공주인줄..."

[오프닝] 우리 검찰이 바뀌었어요...이건 다 촛불 시민의 덕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사상누각'에 열받은 검찰, "피의자 박근혜 오늘 조사받자"  
 -윤석열 "난 이미 취 정권에 칼 들었던 사람" 특검 합류 거절  
 -김기춘 "여성 대통령에게 결례라서 세월호 7시간 못 물어"  
 -홍, 차음서 처방받던 태반 등 주사 구매... '박근혜용인' 듯  
 -지금 탄핵 표결하면 아슬아슬...새누리 30명 "탄핵하겠다"  
 [뉴스듣기능력평가] '넘버3 권력'에 묻는 '넘버3 재발'은?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박근혜 대학동기' 장명진 방사청장, 미국 가서 망언 발언  
 -일본 눈치보느라 독도방어훈련 미루 매국적 박근혜 정권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우리은행 민영화, 한국 금융계에 던지는 새로운 화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돌연 찬성으로 바꾼 국민연금  
 [공화국 논평] 탈당한 남경필에 대한 강도높은 중대조치

박근혜 수사

東포日報 검찰이 압수수색 봐준 사람은 차 친척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변호사 시절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의 횡령 사건을 변론했다. 이 사건, 황두연 대표가 한 건설업체를 통해 비자금 52억 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검사 수사팀은 이 건설 회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건설회사 대표 박 모 씨는 대통령 박근혜의 친척이었던 것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을 찾아가 “검찰 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 있다. 항소를 포기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게 여러 법조인의 증언이다.

세계일보 檢, “피의자 박근혜는 오늘 나오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오늘 나오라고 했다. 검찰은 대면조사가 어디에서 이뤄지든 박근혜를 ‘피의자’로 부르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정유라를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박근혜 뇌물죄,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

어제 ‘최순실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에서 특별검사로 넘어가게 됐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이어질 특검 수사도 결국 뇌물혐의 입증에 핵심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대기업 총수 7명과 ‘독대’ 해 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 때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접수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뇌물을 받은 거면 형량도 상당하겠지?

한국일보 윤석열, 아쉽지만 특검 합류 거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역임한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최순실 특별검사팀’에 과건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석열 검사는 “난 이미 이번 정권 초기에 대통령 박근혜에게 상처를 낸 사람”이라고 밝힌 것이다. 대선개입 수사로 인해 3년 째 좌천 중인 자신이 특검에 참여한다면 ‘보복성’ 행동으로 비쳐진다는 취지다. 아쉽긴 해도 참 멋있다.



오늘을 읽는 책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파커 J. 파머 지음 | 김찬호 옮김 | 글항아리

끼리끼리 논다

중양일보 김기춘 “여성에게 시술 질문은 결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중양일보가 인터뷰를 가졌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 박근혜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한 7시간 동안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근혜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여성 대통령에게 그런 걸 묻는 건 결례라고 설명했다.

중양일보 차 “崔, 국민 싫어할 일 하고 다녀”

대통령 박근혜는 해야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상태라고 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촛불시위 때문에 박근혜의 표정이 어두웠는데 지난 일요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마음을 확실히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참모들이 최순실의 비행 내역을 보고하자 박근혜는 “국민들이 싫어할 일은 다 하고 다녀” “내 앞에선 그냥 조용히만 있어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전히 저 잘났다는 환상 속에 갇힌 박근혜다.

세계일보 崔 “朴, 아직도 지가 공주인 줄...”

최순실 일가 차량을 20년 간 운전했던 김 모 씨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김 모 씨는 최순실이 대통령 박근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박근혜의 일상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최순실은 박근혜에 대한 뒷담화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와 통화가 끝난 다음에는 ‘아직도 지가 공주인 줄 아나 봐’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다. 운전기사의 이런 평가도 소개해보겠다. “박근혜는 공주라고 보면 된다. 공주는 뭘 모르잖아? 박근혜는 영혼까지 최태민 일가에게 뺏긴 사람이야. 거기서 헤어 나올 수가 없다. 박근혜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 최태민 일가는 악마라고 보면 된다. 어떻게 보면 최태민부터 최순실까지 박근혜의 정신과 마음, 영혼까지 다 빼앗았다.” 최순실 20년 운전기사가 한 말이다.

질풍노도의 박근혜

한겨레 최태민, 박근혜 어릴 때 최면 걸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검증했던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과 한겨레가 인터뷰를 했다. 정두언 의원은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제씨가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로 찾아왔다고 밝혔다.

조순제씨에 의하면 최태민은 육영수 여사 생전에도 박근혜와 만났다고 한다. 박근혜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공부에 소홀히 하자 최태민이 청와대에 들어와 박근혜를 '최면술'로 '치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육영수 여사 사후에는 박근혜가 식음을 전폐하자 최태민이 청와대로 찾아갔다. 박근혜는 방안에서 최태민과 만났고 20분만에 활짝 웃는 얼굴로 나왔다고 한다.

### 한겨레 청와대로 '위장전업' 한 공주님

한겨레 고명섭 논설위원이 대통령 박근혜가 퇴진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를 분석했다. 일부 소개한다.

“박근혜는 10살 때 청와대에 들어가 27살 때까지 18년을 살았다. 자아가 형성되고 확고해지는 결정적인 시기를 권부의 한가운데서 '공주'로 지냈다. 청와대는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되찾은 집이다. '어떻게 찾은 집인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야' 하는 마음이 지금 박근혜의 마음 아니겠는가. 독재자는 스스로 몰려나지 않는다. 국민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무릎 꿇게 하는 수밖에 없다.”

#### 끝 없는 의혹들

### 국민일보 최순실, 평창올림픽도 이권 개입

삼성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원한 1000억원 후원금 중 약 10%가 모나미와의 용역계약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나미는 정유라를 위해 약 28억원에 달하는 독일 스마장 구입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이 평창올림픽 후원금을 매개로 모나미를 통해 정유라를 우회 지원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최순실 일가가 평창올림픽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기업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기업들이 평창올림픽에 낸 후원금은 7800억원에 달한다.

### 한국일보 靑, 차움서 태반·마늘주사 대량 구매

청와대가 최근 2년 동안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을 2,000만원어치 넘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 지문의 김상만 씨가 소속된 녹십자 제품이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한 이들 의약품은 김상만 씨가 차움의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불법 대리처방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에게 투여하던 주사제와 일치한다. 결국 박근혜 용도인데, 청와대는 직원용이라고 했다. 이런 거짓말은 믿으라고 하는 말인가?



#### 위기의 새누리당

### 중앙일보 지금 탄핵 표결하면 아슬아슬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답했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3당의 의원들 171명과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간당간당하다.

### 朝鮮日報 새누리, 3명 곧 탈당·22명은 결심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같은당 김용태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에 조선일보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의명을 요구한 의원 3명은 "곧 탈당하겠다"고 밝혔으며 22명은 "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朝鮮日報 김무성, 탈당 대신 탄핵 주도 결심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의원들의 탈당이 임박했다는 말이 나온다.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은 김무성 의원이 이미 탈당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 박근혜 '뇌물죄' 성립의 열쇠

### KBS 삼성 합병, 국민연금공단도 부적절 인정

KBS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을 분석한 법률보고서인 것이다. 이 문서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은 절차상 문제점이 지적됐다. 내부 인력만 참가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이 결정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명시한 것이다.

#### 朝鮮日報

### 검찰, 문형표·홍완선 소환 방침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 검찰은 국민연금이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건너뛰고 투자심의위원회만 거친 이유가 미심쩍다고 보고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주재로 열렸다. 또한 일부 매체는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것, 검찰은 문형표와 홍완선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엘시티 '엄정 수사'

**매일경제** 현기환, 이영복과 23차례 골프 회동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의 시행사 회장 이영복씨와 23차례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 비용은 이영복 회장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여러 기업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과 골프를 같이 친 사람들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기중 전 부산고법원장,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서용교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으로 추정되는 이름도 있었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졸지마, 검찰”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검찰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이춘재 법조팀장의 “졸지 마, 검찰”이다.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멋진 반전이었다. 사건 초기 ‘늑장 수사’로 비난받던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주범으로 묘사한 공소장을 써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여전히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미르재단 등에 거액을 낸 재벌 총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반쪽 수사’라고 폄하한다. 촛불 민심을 간파한 검찰이 말 같이했다는 비아냥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정 조준해 수사를 진행하는 건 평가받아야 한다.

검사들 가운데는 사표를 쓸 각오로 수사에 참여한 이들도 있다.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향해 ‘대면조사를 꼭 해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상대는 권력 유지에 혈안이 돼 ‘막가파식’ 태도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아닌가.

당장 내년 2월에 있을 검찰 인사 때 이영렬 본부장을 비롯한 수사 검사들이 무더기로 좌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나돈다. 이를 막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촛불 민심 속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야당을 대신해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가했으니 말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수사팀은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 그동안 검찰이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 제 할 일을 하는 검찰의 뒤엔 항상 국민들이 있다. 이제는 권력의 횡포에 너무 졸지 않았으면 한다.” 조금이라고 검찰이 검찰다우면 국민은 박수를 친다. 지금 욕먹는 KBS, MBC도 그러하지 않겠나.

Seoul Metro HaYa Map  
**서울메트로 하야** 촛불지도  
서울지역 박근혜퇴진 구별 촛불현황

